

광주 에너지 기업과 투자자 한자리에 GIST, 'G.E.T. & Re:Born' 기술교류회 개최

- 광주경제자유구역청, 한국산업은행,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광주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 통한 지역 성장 동력 마련 기회 모색
- 7개 지역 에너지 기업 IR 발표와 현장 상담 부스로 성장 지원 집중... 기술-산업-투자-정책 연계 플랫폼 구축해 광주형 에너지 생태계 조성 기대



▲ 6월 11일(수) GIST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'G.E.T. & Re:Born 광주 에너지산업 기술교류회'를 개최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, 한국산업은행,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광주 지역 에너지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투자 연계 활성화를 위한 'G.E.T. & Re:Born 광주 에너지산업 기술교류회'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.

* **G.E.T.:** Gwangju Energy Tech

이번 행사는 6월 11일(수) GIST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열렸으며, 에너지 관련 기업, 투자자, 정책기관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유망 기업들의 IR 발표와 함께 에너지 산업 관련 정보와 투자 기회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다.

특히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스마트 에너지 산업지구를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전략과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을 소개했으며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주 지원, 기술 개발, 자금 연계 등 다양한 성장 지원 사업을 안내하며 현장 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.

7개 에너지 기업도 참여해 **기업별 IR 발표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 비전을 공유했다**. 발표에는 ▲그리다 에너지 전석 대표이사 ▲(주)유에너지 최태원 대표이사 ▲(주)다원디엔에스 여운남 대표이사 ▲(주)에코브이 나영학 대표이사 ▲제트이브이(주) 이광원 대표이사 ▲(주)커넥티드 조형근 연구소장 ▲(주)셀리안츠 정우근 대표이사가 참여했다.

발표와 함께, **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한 현장 상담 부스**를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 정보가 제공됐으며, 정책기관·기업·투자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활발한 교류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됐다.

이광희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장은 "이번 행사가 단순한 교류와 소통을 넘어, **광주형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의 실질적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**"며, "에너지밸리기술원은 앞으로도 기술-산업-투자-정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**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**"이라고 밝혔다.



▲ 'G.E.T. & Re:Born 광주 에너지산업 기술교류회' 행사에서 이광희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.

행사를 공동 주최한 기관들은 이번 기술교류회를 계기로, ▲정례적인 기술·정책 연계 플랫폼 운영 ▲IR 발표에 대한 후속 피드백 기반 투자 매칭 ▲정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.

특히 **GIST는 에너지밸리기술원을 중심으로 산학협력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고, 에너지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**.